

경진원, 지역경제 발전 선도 역할 재입증

4분기 '혁신도정상' 수상...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 확대 등 인정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 원장 윤여봉)이 2024년 4분기 '혁신도정상'을 수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상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실이 주최하는 상으로, 전북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의 혁신성과를 평가해 수여된다.

시상식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소통의 날' 행사에서 진행되었다. 경진원은 도내 기업들의 수출 촉진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수상은 전북 유일 통상전문기관인 경진원의 30년간의 수출지원 노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 2024년 4분기 '혁신도정상'을 수상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하우 발전한 제2차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에서 거둔 혁신적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경진원은 약 2만 회

이상의 비즈니스 미팅을 주관하고 5,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전북을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로 자리매김시켰다. 특히, 주요 경제인과 1:1 밀착 케어로 도내 유망기업 발굴해 수출계약 체결까지 유도한 것이 큰 주목을 받았다.

대회 이후 20여명의 통상전문가 상담내용 분석과 컨설팅 실시를 통해 실제 계약과 연결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까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JB-fair 국제 금융 포럼(지니포럼) 및 일자리 페스티벌과 같은 연계 행사를 통해 금융도시로서의 도약과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혁신도정상 수상은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룩한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의미 있는 성과이며, 앞으로도 도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 20일 이여규 국민연금공단 북지이사(오른쪽)와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왼쪽)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자 노후준비 지원 '맞손'

국민연금공단, 한국노총과 안정적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지난 20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 및 연맹이 주관하는 행사 참여 근로자들의 노후준비 인식과 국민연금 제도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자신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노후준비 진단부터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위해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에 대한 교육과 상담까지 체계적인 노

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실업급여, 반납금과 추납보험료 납부 등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이날 이여규 북지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근로자가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연금 제도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기자



건협 전북,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에 감사패 수여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유명순 전북지역본부장에게 회원사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소재철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역 중소 건설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명순 본부장이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위주의 교육 등을 지원하며 건설현장 재해 발생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기여하였기에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명순 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 중소 건설사의 안전관리 역량과 대응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전한 건설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aT, 'K-공공디지털혁신 대상' 지역정보화학회회장상 수상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 농업 분야 현안 해소에 기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사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으로 농업 분야 주요 현안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일 한국지역정보화학회(회장 방민석) 주관 K-공공디지털혁신 대상에서 한국지역정보화학회회장을 수상했다.

K-공공디지털혁신대상은 각 공공기관이 시행한 디지털 정부 정책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시행된 포상 제도로, 올해 행사는 학회와 서울여대(총장 승현우),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원장 문상호)이 주최해 aT를 비롯한 10개의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민간 플랫폼 민간의 레시피와 협업한 '알뜰한끼' 서비스로 물가 부담 완화와 농가소득 제고 기여 △세계 최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운영으로 유통 혁신 △빅

데이터 활용 맞춤형 경영 컨설팅 서비스로 외식업체 경영난 극복 지원 등 다양한 디지털 혁신 노력으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사회 현안 해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aT는 2021년부터 디지털 정규 조직을 기반으로 농식품 빅데이터 거대소 커덱스(KADIX)를 운영하며 농식품 데이터 유통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빅데이터·AI를 활용한 선제적 농산물 수급 관리부터 공공급식통합플랫폼을 활용한 안전한 급식 식재료 공급 등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을 주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과 연계한 디지털 추진전략을 수립해 전사적인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결과 올 한해 △알뜰한끼 서비스 기획재정부 대국민 서비스 우수사



례 선정 △대한민국 지식대상 지식경영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표창 △데이터 산업 진흥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등 농수산식품 분야 디지털플랫폼 구현을 인정받았다.

홍문표 aT 사장은 "aT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업과 빅데이터·AI 기반 업무 프로세스 혁신 등 농업 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바이오진흥원,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 물품 기부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지난 19일, 연말을 맞아 공무 출장으로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전주 삼성휴면빌(아동보호시설)에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지난 2015년부터 바이오진흥원 임직원들의 국내외 출장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로 치솔 살균기, 타월, 텀블러 등 174만원 상당 물품 88점과 임직원 기부금 등 총 244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한 이번 기부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연기관 중 처음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기부 사례로 그 의

미를 더했다.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고 소멸될 수 있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기부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기부 방안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바이오진흥원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